민족문화연구 제92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92호에는 기획특집 논문 4편, 일반 논문 9편을 포함하여 총 13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일반 원고로 수록된 논문은 역사학 5편, 국문학 2편, 국어학 1편, 대조언어학 1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기획특집의 주제는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에 나타난 언어와 문화"로, 4편의 수록 논문에 대해서는 따로 '특집의 말'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일반 논문과 해제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여느 호처럼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한 글이라는 점에서 논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논문에서 다룬 쟁점이 얼마나 새로운 결론으로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정연식은 "경주의 두 곳 빈지(賓之)와 본피(本彼), 벽진(碧珍)의 뜻"에서 『동경잡기』의 賓子와 『삼국유사』의 賓之/賓子의 위치가 다른 문제가 실제 경주에 賓之/賓子가 두 곳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그 의미를 사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과거의 지형도를 활용하고 역사음운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경주의 두 '빈지'가 중심부에서 먼 곳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빈지'가 고대 일본어와 원시 알타이어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本彼의 경우 후기 상고음으로 재구한 뒤 그 의미를 '멀리 떨어진 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碧珍도 本彼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타이어와 고대 국어의 재구형을 통해 밝히고 있다.

최종석의 "고려적 國制 운용의 인식적 맥락들"에서는 베트남의 外王內帝 체제와 이질적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이 어떠한 지적 맥락에서 발현·귀결되었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고려 나름의 이중 체제 양상뿐만 아니라 그러한 양상에 작용한 지적 환경이 당대 베트남과는 이질적이었을 것으로 보고, 황제국 체제와 거리가 먼 고려만의 國制 양상이 중국 왕조를 의식한 자주·대등 의식과는 전혀 다른 지적 맥락에서 성립·운영되었음을 규명하였다.

김경록은 "임진전쟁 초기 선조의 전쟁인식과 播遷논쟁"에서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임진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임진전쟁의 발발과 전황의 변화과정, 선조의 전쟁초기 전쟁인식과 전쟁지도, 파천논쟁의 전개과정,

파천의 결행과 그 역사적 의미 등을 정리하였다. 전쟁 초기 전쟁에 대비했다고 인식하는 선조의 현실 파악의 실제, 전통적인 방식의 전쟁지도 과정, 왜곡된 전황 보고로 인해 선조의 전쟁지도가 제한되는 과정, 이후 파천을 결정하면서 위기를 맞는 과정, 파천책임론에 직면하게 된 과정, 평양, 의주 등지로 파천하고 명군의 파병을 요구하게 된 과정 등을 세밀하게 밝히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천착하지 못한 국왕 선조에 집중하여 논점을 정치하게 설명해 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민정의 "인조대 功臣會盟祭의 시행과 참여자 論賞"에서는 국가가 공신 자손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대 정책의 실상을 고찰하기 위해서 인조대를 중심으로 전후의 공신회맹제가 시행되는 과정, 회맹제의 참여 인원, 회맹제 이후의 참여자 상격에 대하여 살폈다. 특히 회맹제 때 공신의 적장자와 친자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사공신 회맹제 때부터이고 적장손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팔공신 회맹제 때부터임을 밝혔고 회맹제 후 공신의 적장 자손에게 가자를 내리거나 노직을 주는 등 특별한 우대를 하였음을 규명해 내었다.

고현혜는 "이상의 「실화」, 국화(菊花)와 영란동(鈴蘭洞)"에서 이상의 마지막 소설인 「실화」를 대상으로 도쿄행 이후 이상의 동경에 대한 인식 및 내면풍경을 도쿄행 이전의 그것과 연계해 객관적으로 복원하였다. 「가을의 탐승처」, 「가외가전」에서 피력된 동경행 동기 및 일본 근대성에 대한 인식이 「실화」에 나타난 근대성의 본질 탐구와 단절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이어지고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화」에서 서로 맞물려 있는 주체, 사건, 꽃, 장소 표상의 분석을 통해 '실화'와 '득화'를 '기존의 삶·글쓰기와의 결별' 및 '새로운 삶·글쓰기의 출발'로 해석해 동경에서 삶·문학의 전환을 맞이한 이상의 내면을 규명해 내었다.

김민석의 "한국냉장주식회사 설립과 운영의 성격(1968-1974)"에서는 1968년에 설립된 한국냉장주식회사의 설립과정과 운영실태를 통해 박정희 정권기 농업정책의 성격과 한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감사원 및 재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냉장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한국냉장의 설립과 초기 운영과정이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농수산업부

문 정책이 갖는 모순과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 1960년대 후반 농수산업은 이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유지 및 발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농수산업 정책의 계획과 실행은 끊임없이 괴리되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김남석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타난 제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이 신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거대한 축제를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주인공 치히로의 온천장 진입, 신과 소통하는 센(千)으로의 변모 과정 등이 치히로가 완성된 샤먼으로 거듭나는 개인적 수련이자 인격적 성장과 연관되면서도 사회적 측면에서 한 집단이 제의를 통해 성스러운 종교적 체험을 수행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장선우의 "'이음절 한자어+되다'의 분류와 중국어 대응 유형 분석"에서는 한국어에서 '이음절 한자'로 구성된 명사에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한자어+되다' 동사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어에 피동 표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 뒤 중국어 대응형에 피동 표지 유무 규칙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한자어+되다'의 논항 구조를 6가지로 분류하고 논항 N이 담당하는 의미속성을 '사람, 단체, 구체, 추상, 사건, 공간' 등으로 나누어 이를 통해 중국어 대응 유형을 분석하였다.

송인성의 "원주 지역어의 세대별 단모음 실현 양상"에서는 원주 지역 출신 70대와 20대 남녀 화자의 음성 자료를 구축한 뒤 모음의 포먼트 분석과 모음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세대별 단모음의 특징을 분석하여 원주 지역어의 단모음에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설 모음에서 /ㅟ/와 /ㅚ/, /ㅖ/와 /ㅐ/, 후설 모음에서 /ㅡ/의 실현 양상, /ㅓ/의 실현 양상, /ㅜ/와 /ㅗ/의 실현 양상을 각각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방언학과 음성학 연구에서 관심이 부족하였던 원주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음향음성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70대와 20대 화자의 단모음 특징과 세대 간 차이를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호의 해외한국학자료 해제에서는 송지원이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된 『악원고사(樂院故事)』를 소개하였다. 『악원고사(樂院故事)』는

1969년에 이세필(李世弼, 1642-1718)이 종묘제례의 각 절차에 사용하는 악장(樂章)을 모아 주설(註說)을 붙인 책으로, 버클리대 소장본은 1737년 이후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성은 1책 39장으로 상편(上篇)과 하편(下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규장각본에 비해 일부 장에서 결락이 보인다. 이 자료는 17세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종묘 악장 논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 놓은 자료집으로서 17세기 명신들이 어떠한 입장과 전거(典據)로 종묘악장 논의를 펼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족문화연구』 제92호에는 역사학, 국문학, 국어학, 대조언어학 등 각 분야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쟁점들을 발굴하여 신선한 결론에 이른 성과들이 눈에 띈다. 독자들의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학의 종합 학술지를 지향하는 『민족문화연구』는 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다. 적극적으로 투고하시기를 바란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